

북한의 방언론

최 명 옥

1. 들어가기

북한의 방언연구는 1960년대 중반을 기준하여 그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1960년대 중반 이전에는 맑스-레닌 언어이론이 수용되어 그 이론이 방언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소위 주체언어이론의 바탕에서 문화어를 발전·보급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방언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本稿는 해방 후 지금까지 북한에서 이루어진 국어 방언연구의 논저를 분석함으로써, 방언연구에 존재하는 남·북한간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구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방언연구에 대하여는 郭忠求(1990)과 박영준(1991)에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김병제의 『조선어 방언학 개요』(상, 중, 하)와 『조선언어 지리학시고』는 각각 김영배(1991)과 이기갑(1991)에서 별도로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해방 이후로부터 1990년까지 북한의 방언연구가 지향하는 목적이나 방언연구에 적용된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연구 논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대체로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연구가 가진 공통점은 개별 연구의 내용에 대한 검토에 철저한 나머지, 개별 연구들의 바탕에 작용하여 온 연구 목적(또는 주제)과 방법(또는 이론)과 실제 연구내용과의 상호 관계를 부각시키는 데에는 소홀히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 필자는 그 점을 감안하여, 2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언연구의 목적과 방법의 흐름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방언연구를 하위 분야별로 검토하며, 결론인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고 그것을 남한의 방언연구와 비교하여 남·북한의 방언연구가 가진 차이점을 구명하고자 한다.

2. 요구되는 방언연구의 목적과 방법

여기서 논의되는 방언연구의 목적과 방법은 연구 결과의 분석에서 추출

된 것이 아니라, 검토 대상 저서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목적과 방법은 실제 연구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일 뿐, 실제 연구에 적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의 방언연구에 제시된 목적과 방법이 어느 정도로 수용되었는가는 제3장의 검토에서 확인될 것이다.

2. 1. 방언연구의 목적

북한의 방언연구의 목적은 김병제(1959: 20), 한영순(1967: 32-33), 김병제(1975: 2-4), 김영황(1982: 13-14), 정용호(1988: 10)에 명시되어 있다. 김병제(1959: 20)에 의하면, 방언연구의 목적은 국어에 속하는 모든 방언을 연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국어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밝히고 국어를 규범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목적은 한영순(1967: 32-33)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김병제(1975: 2-4)에는 방언연구의 목적이 종래와는 매우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김병제(1975) 이전까지의 방언연구는 오직 언어의 역사적 연구를 위하여서만 의의를 가지는 순수 이론적인 언어학의 한 분과로 인식되어 왔으나, 새로운 방언학은 단순히 방언들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민족적 특성이 살아 있고 국민성이 풍부한 민족 고유의 요소들을 찾아내어, 그 가운데에서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오랫동안 작용하여 온 언어 법칙과 규칙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어를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족어’는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를 뜻한다. ‘문화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방언을 정확히 이해하고 방언들이 상호 충돌하여 말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결국 방언연구의 목적은, 학술적으로는 국어의 역사를 밝혀서 국어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여하는 것이며, 실용적으로는 ‘문화어’를 발전·보급시키기 위하여 방언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문맥상으로는 후자의 목적이 주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은 김영황(1982: 13-14)과 정용호(1988: 10)에서 훨씬 명백해진다. 김영황(1982: 13-14)에 의하면, 방언연구의 목적은 첫째로 문화어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언어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로 국어의 역사를 깊이있게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용호(1988: 10)에 의하면, 방언연구의 목적은 방언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어 국어를 풍부하고 아름답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말하면, 방언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종합·분석하고 체계화하여 그 합법칙성을 찾으며 사회의 언어생활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위의 서술에서 우리는 북한에서의 방언연구 목적이 1960년대 중기를 기

준으로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맑스-레닌 언어이론이 지배 하던 1960년대 중기 이전에는 방언연구의 주목적이 국어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지만, 주체 언어이론으로 바뀐 1960년대 중기 이후에는 방언연구의 주목적이 ‘문화어’를 발전·보급시키기 위한 것으로 되었다. 이리하여 북한에서 방언연구의 목적은 학술적인 것에서 실용적인 것으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하겠다.

2.2. 방언연구의 방법

북한의 방언연구의 방법은 김병제(1959)와 한영순(1967)과 김영황(1982)에서 알아 볼 수 있다. 김병제(1959)에는 비교·역사적 방법(p. 20)과¹ 언어지리학의 방법(p. 93)에 의한 연구가 강조되어 있고,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등 인접학문과의 관련 속에서(pp. 20-34), 그리고 문헌 자료와의 대비에서 비교·역사적 방법의 도움으로(p. 93) 방언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을 뿐, 방법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없다.

그러나 제4절(조선어 방언 연구의 간략한 력사)(pp. 62-93)에서 다루어진 기존 연구방법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앞으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방언연구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추측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대한 제4절의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언과 언어체계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 과거에는 언어체계로서의 국어 방언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문헌상에 나타나는 ‘ㅇ, △’ 등을 음운체계와 관련시키지 않고 개별적 현상으로서 고립적으로 서술하거나 나열함으로써 법칙과 일반화를 끌어내지 못하였다(p. 79). 그리고 언어 자료와 연구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 실재하는 방언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연구자 자신이 미리 설정한 결론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었다(p. 79).

언어체계와 언어 현상들 상호간의 관계에서 볼 때에, 개별 방언의 연구에 있어서도, 어음론적, 형태론적, 어휘론적 특성을 찾기 위한 분석을 한다고 하면서도 방언을 완결된 언어체계로 보고 그 체계 안에서 다른 방언이 가지는 특성들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pp. 79-80). 한편, 대상 지역의 범위와 연구 내용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 연구 대상 지역의 범위가 전국 또는 대방언권과 같이 너무 넓어서 구체적이고 면밀한 방언 연구가 불가능하였으며 그 결과 개괄적 서술에 머무르게 되었다(p. 92).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우리는 ‘개별 방언을 대상으로, 방언을 독립된 언어체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음운, 형태, 통사, 어휘 등의 하위 분야에서 일

¹ 괄호 속의 페이지 숫자는 해당 논저의 페이지 숫자를 말함. 이하 동일함.

어나는 방언의 제현상을 체계와 관련하여, 체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법칙과 일반화를 끌어내는 것'과 병행하여 언어지리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김병제(1959)가 의도하는 방언연구의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라는 것은 한영순(1967)에서 분명하게 된다. 한영순(1967: 37-41)에는 방언연구의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1) 방언의 언어적 체계를 연구하는 것(p. 37)과 2) 방언의 특성들과 체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1)과 2)는 각각 개별 방언의 연구방법과 언어지리학적 연구방법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의 경우에는 방언을 독립된 체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그 체계를 연구하여야 하며, 문화어와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p. 37)고 서술한다.

특히 방언학이 언어의 역사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어떤 현상에 대한 결론을 개별 방언 자료만 가지고 끄집어 내려고 하지 말고, 그 현상이 그 방언의 언어적 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현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어떤 법칙이 작용한 결과인가를 밝히고, 문헌이 나온 당시의 언어적 체계와 해당 요소나 현상의 위치를 밝힌 후에 내리는 결론이라야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p. 39).

반면에, 2)의 경우에, 언어지리학을 위한 개별적 현상은 국어 방언들의 체계와 그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기초에서 선택되어야 하며(p. 41), 지도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그 방언의 체계뿐 아니라 그 방언을 사용하는 주민과 그 지방의 역사, 한국의 역사, 한국민의 생활 등 언어 외적 환경과 조건들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p. 42)고 서술한다.

끝으로, 김영환(1982: 12-13)는 방언학이 언어학의 한 분과이므로, 언어학의 한 분과로서 방언과 그 방언 사용자들의 언어생활을 연구하여야 하며, 언어학적 방법으로 방언을 분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것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첫째로, 방언과 그 방언 사용자들의 언어생활은 그 지방과 그 지방민의 역사, 전국민의 역사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연구하여야 한다. 둘째로, 방언은 반드시 언어적 체계로서 연구되어야 한다. 방언은 일정한 연관 속에 존재하는 언어적 체계이며 오늘 남아 있는 방언적 요소들도 다 그 체계의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다른 요소들과의 연관 속에서 그것을 움직여 오던 법칙과 규칙과의 관계 속에서 연구하여야 한다. 셋째로, 언어지리학적 방법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방법으로 방언을 연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개별적 언어 요소들의 분포구역을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낸 다음에 방언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정확히 규정하고 그 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하며, 방언지도는 반드시 지리적 조건 그 자체와 결부시켜 고찰하고 역사와도 결부시켜 입체적인 분석을 가해야 한다.

위의 서술에 의하면, 북한의 방언연구는 개별방언연구와 언어지리학적 연구로 크게 구분되며, 전자에는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주의 언어학적 방법이, 후자에는 전통적인 언어지리학적 방법이 적용될 것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김병제(1959)에서 김영황(1982)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달라지지 않고 지속됨을 알 수 있다.

3. 하위 분야별 연구의 검토

2장에서 논의된 방언연구의 목적과 방법이 실제 방언연구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이 이 장의 주요 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북한의 방언연구 論著를 개별방언연구, 대조방언연구, 언어지리학적 연구로 분류하여, 분류된 각 연구 논저를 실제의 연구 목적 또는 주제와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그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방언자료나 자료수집과 관련된 글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1. 개별방언연구

개별방언에 대한 연구를 어음론적, 형태론적, 어음론과 형태론적 연구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어음론적 연구에는 한영순(1956b, c), 김병제(1958a), 정용호(1959, 1963, 1986, 1988a), 리극로(1963), 김영황(1978)이 있고, 형태론적 연구에는 김병제(1963)과 정용호(1965)가 있으며, 음운론과 형태론적 연구에는 한두복(1962)와 정용호(1988b)가 있다. 다음에 이들 연구를 별개의 항목으로 하여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3. 1. 1. 어음론적 연구²

먼저 한영순(1956b, c)는 평안북도 의주 피현방언을 공무원, 교원, 아동 등 광범위한 주민층을 대상으로 그 방언의 현재 상태를 그 움직임 속에서 밝히고자 한 것이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자·모음체계를 밝히고,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서의 어음배합 문제를 조사하여 23가지 특성을 밝히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음중복과 기피방법’으로는 ‘소+아지’송아지’와 같이, 두 모음 사이에 鼻자음을 삽입하는 방법과 ‘오+아서’가 ‘와서’로 되는 것과 같이, 어간말 모음이 반자음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는 것, ‘모음의 장단관계’에서는 ‘놀:구(遊),³ 놀리문(使

² ‘어음’과 ‘어음론’의 개념에 대하여는 ‘북한의 어음연구’를 참조할 것.

³ : 는 장음 표시임. 이하 동일함.

遊)', '말: (語), 말씀'과 '알: 구(知), 아라←알+아'와 같이, 파생접사가 붙거나 단어 조성적 접사가 붙어 다음절어로 될 때에 장모음이 단모음으로 된다는 것, '자음뒤에서 이중모음의 실현과 변화'에서는 자음 뒤에서 j는 토박이 노년층의 말에만 유지되고 그 외 대부분의 주민층의 말에는 기피된다는 것, '자음과 모음의 배합'에서는 해당 방언은 '니불'에서 보듯이 'ㄴ'과 'ㅣ'가 배합될 수 있다는 것, '자음과 자음의 배합'에서는 '발떠←뵤+디(踏)'에서와 같이, 어간말 자음군', 'ㄹ, 리'을 가진 명사나 동사는 어말이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에서 'ㄹ'만 실현된다는 것 등이다. 그 결과 해당 방언은 표준어와 일치하는 현상은 지속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고유한 어음론적 특성이 점차 중단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한다.

이 논문은 북한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개별방언에 대한 순수 어음론적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논문에는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서 발견되는 많은 통시적, 공시적 어음현상이 상당히 정밀하게 관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장모음의 단모음화의 조건이나, 세대차나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동시대에서 언어변화 과정을 밝히고자 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통시적 현상과 공시적 현상을 혼동하고 있다거나, 표준어나 15세기 국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국어를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김병제(1958)은 p-w의 교체와 j가 각종 어음들과 결합될 때의 방언적 현상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뵤'은 'ㅂ>뵤>ㅌ'와 같은 변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그것은 '확(石臼)'의 지리적 분포에서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자음과 j의 결합에서 실현되는 방언적 차이를, 'ㄷ, ㅌ, ㅎ'구개음화 여부와 어두 'ㄹ, ㄴ'의 탈락 여부, 그리고 'ㅅ, ㅈ, ㅊ' 뒤에서 j 탈락 여부를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서북방언이 가진 특성을 구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서북방언에는 'ㄱ, ㄷ, ㅎ'의 구개음화가 없으며, '너자<너자, 냥심<량심'에서 보듯이, j 앞에서 'ㄴ'은 삭제되지 않고 같은 환경에서 'ㄹ'은 'ㄴ'으로 된다는 것 그리고 'ㅅ, ㅈ, ㅊ' 뒤에서 j가 탈락되지 않는다(방언 예 없음)는 것이다.

이 논문은 '자음+j'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이 '동화'와 '두음법칙'(#-에서 'ㄹ'이 'ㄴ'으로 되는 것)에 의한 것임을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구개음화, 어두의 'ㄴ'탈락, 어두의 'ㄹ'ㄴ' 등과 같은 서로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이 동일하다는 것을 포착한 것이 주목된다.

그리고 정용호(1959)는 단어의 형태부에 첨가되는 '이'음의 특성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기름>지름, 효자>소자' 등에서와 같이, 구개음화에서 '이'의 역할, '기여(기+어), 머리예(머리+예), 누데기<누더기' 등에서와 같이,

동화작용을 일으키는 ‘이’의 역할, ‘내<나(我)>+이’ 등에서와 같이, $V-]_N$ 에⁴ 첨가되는 ‘이’, ‘바택이<바다이>’ 등에서와 같이, $-C]_N$ 에 첨가되는 ‘이’, ‘귀갱<구경, 핵교<학교>’ 등에서와 같이, 비어말에 첨가되는 ‘이’에 대한 고찰이 주된 내용이다.

단어의 형태부에 첨가되는 여러 경우의 ‘이’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 것은 언어현상을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필자는 결론적으로 $V-]_N$ 에 첨가되는 ‘이’만이 통사현상에 관여하며, 새 단어 조성에 적극 관여한다(예. 늙은 쇠 콩밭을 간다. 쇠 먹인다; 쇠구시(=소구유)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의 단어로 기능하는 것이다. 국어에서 명사는 격어미를 동반하지 않고도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늙은 쇠 콩밭을 간다’에서 ‘쇠’를 ‘소’로 대치시켜도 동일하다. 그리고 ‘쇠구시’는 ‘소+ㅣ(속격)+구시’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지 ‘쇠+구시’의 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cf. 쇠고기). 이 논문 역시 공시적 현상과 통시적 현상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기여, 머리에’ 등은 공시적 현상이며, ‘귀갱<구경, 핵교<학교>’ 등은 통시적 현상이다. 한편, ‘기름>지름, 효자>소자’ 등의 경우는 형태부에 첨가되는 ‘이’가 없으므로 이 논문에서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용호(1963)은 함경남도 방언에서 ‘ㄱ, ㄷ, ㅎ’ 구개음화 현상의 발생과 발달의 특성을 구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구개음화는 고유어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본적이며 후설자음(ㄱ, ㅋ, ㅎ)들에서 정상적이고 규칙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설자음(ㄷ)들의 구개음화는 경향적인데(p. 40), 그것은, ‘부처다<불이다, 가치<갈이>’ 등에서와 같이, 전설자음의 구개음화가 어중에서만 일어나며, ‘디딘다, 티; 바티<밭+이, 거티<겉+이>’ 등에서와 같이, 어두에서나 꼭용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p. 40).

구개음화현상을 ‘고유어와 한자’와 ‘전설자음과 후설자음’으로 구분하여 가능한 모든 환경을 고려하여 관찰하고 있는 점과 ‘티, 기-(匄)’가 구개음화하지 않는 이유를 역사적 관점(‘퇴, 괴’)에서 설명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자음 ‘ㄱ’와 모음 ‘ㅣ’가 결합하였을 때 고유조선어 어휘에서는 레외 없이 ‘ㄱ>ㅈ’의 변화를 가져온다. [중략] 이 때 모음은 본래의 ‘ㅣ’로써가 아니라 반드시 ‘ㅣ’, ‘ㅣ’, ‘ㅣ’ 등으로 변화되 [하략](p. 35)”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구개음화가 공시적 현상이며 j-이중모음의 변화가 구개음화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김영환(1978)은 여러 방언에서 일어난 통시적 음운변화를 고찰한 것으로, ‘ㅎ, 빙, △, ㉠’의 변화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그리고 음라우트가 고찰의

⁴ V는 ‘모음’, C는 ‘자음’, N은 ‘명사’,]는 ‘형태소경계’를 표시함. 이하 동일함.

대상이다.

‘으’의 소멸, 이중모음 ‘개, 깨, 나, 기’의 단모음화, 음라우트 등을 모음체계의 변화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견해는 류철(1961: 8)과 金完鎭(1963) 중 ‘3. 音韻變化와 音韻體系’에서 제시된 바가 있으므로 새로운 가치는 없다.⁵

리극로(1963)은 고유 조선어와 한자어의 측면에서 북청방언의 조(=성조), 곧 단어의 음조와 문장의 어조를 해명하고 회화어의 조를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p. 13). 공통어의 조(調)와 북청방언과의 대비, 음절수에 따른 끝속이는 조(=下降調), 한자음의 고저와 동음이조어(同音異調語)(間, 肝), 음조와 어조(=억양)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북청방언의 조를 공통어와 대비하여 고찰하고 있으나 체계적이라 할 수 없으며, 공통어와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리고 북청방언의 특징 중의 하나인 ‘끝속이는 조’는 습관에서 온 형태이며 규칙성이 없음을 서술하고 있지만, 그것의 성격에 대한 설명은 없다.

정용호(1986, 1988a)는 함경도방언의 비문화적인 발음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를 세우고, 사회의 언어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정용호(1986)은 함경도방언과 문화어의 억양(높낮이선, 툄동, 끊기)을 고성능 스펙트로분석기로 분석하여 대비적으로 고찰하고, 정용호(1988a)는 함경도방언과 문화어의 속도를 고성능 스펙트로분석기로 분석하여 대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말의 억양과 속도를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하여 문화어와 함경도방언의 차이를 정밀하게 밝히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학술적인 목적보다는 문화어를 보급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술내용도 실용적이다.

3. 1. 2. 형태론적 연구

형태론적 연구로는 김병제(1963)과 정용호(1965)가 있다. 이 중에서 김병제(1963)은 주격조사의 방언적 특징과 주격조사 ‘-가, -래(서북), -리(제주)’의 발생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주격 ‘-가’를 동사 ‘가-’와 어미 ‘-아’의 통합형에서, 주격 ‘-래’를 종결어미 ‘-라’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주격 ‘-리’를 신라어의 잔재(흔루리 一日, 그루리 紛)라고 보았는데, 이 주장은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⁵ 이 논문에 제시된 예들이 金完鎭(1963)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광충구(1990: 280)에서 지적되었다.

정용호(1965)는 함경남도방언의 격 체계 중 절대격의 위치와 그 문법적 기능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절대격의 기능, 어간에 ‘ㅣ’가 첨가된 단어 형태 문제가 논의 대상이다. 그리하여 전자에 대하여, 절대격은 주격, 속격, 대격, 여격, 호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구명하고 있다. 후자에 대한 논의는 3. 1. 1(어음론적 연구)의 정용호(1959) 중 ‘V-]N에 첨가되는 ‘이’에 대한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3. 1. 3. 음운론과 형태론적 연구

여기에 해당하는 논문으로는 한두복(1962)와 정용호(1988b)가 있다. 먼저 한두복(1962)는 한영순(1956a, b)에 이어 북한에서 두번째로 발표된 개별방언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하나의 체계 속에서 육진방언의 어음론적 특성과 형태론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어음론’에서는 모음체계, 자음체계, 음절구성, 어음변화가 논의되고, ‘형태론’에서는 격토, 접속토, 종결토, 규정토, 상, 존칭, 시칭이 논의된다.

해당 방언의 특성을 음절구성과 어음변화와 형태론까지 고려하여 밝히고자 한 것과 고대어나 기타 방언과의 비교를 통하여 해당 방언의 위치를 밝히고자 한 것은 장점이다. 그러나 어음론적인 것이 모두 형태소 내부의 것에 한정되어 있다거나 형태들의 기능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정용호(1988b)는 문화어와 구별되는 함경도방언의 특성을 어음과 문법, 어휘 등에서 분석 고찰하고 거기서 작용하는 언어적 규칙과 합법칙성을 찾아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함경도방언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제기함으로써 국어의 발전 역사에 대한 연구와 사회의 언어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p. 10). 자음체계, 모음체계, 구개음화, 단어의 형태부에 첨가되는 ‘ㅣ’, 속도와 억양 등을 통하여 어음론적 특성을, 격토, 도움토, 접속토, 상토, 말차림(=존대법)과 말법(=서법), 문장성분의 표현,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통하여 문법적 특성을, 어휘구성, 어휘-의미, 단어만들기를 통하여 어휘론적 특성을 구명하고 있다. 그 결과 문화어와 구별되는 함경도방언의 특성을 없애므로써 함경도 방언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함경도방언이라는 개별방언에 존재하는 많은 언어사실들이 각 분야에 걸쳐 제시된 것이 주목된다. 어음론의 특성들은 거의 통시적인 것이며, 문법적 특성도 형태만 문화어와 대비하여 제시되어 있다. 공시적 현상과 통시적 현상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정용호(1988b)의 논의는 3. 1. 1(어음론적 연구)에 언급된 정용호(1959, 1963, 1986과 1988a)와 3. 1. 2(형태론적 연구)에 언급된 정용호(1965)에 제시된 것과 거의 동일하다.

3.2. 대조 및 비교 방언연구

여기서 대조방언연구는 동일한 기준에 대하여 둘 이상의 방언현상 중에 유사점과 상이점을 단순히 대조하는 연구를 의미하며, 비교 방언연구는 동일한 기준에 대한 둘 이상의 방언현상을 비교하여 분화 이전의 공통방언을 재구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이 방면의 연구로는 김병제(1959, 1965, 1975)와 한영순(1967) 그리고 김영황(1982)가 있다.

김병제(1959)는 방언학의 일반이론과 방언연구방법을 서술하고 방언들의 어음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총론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국어방언의 어음체계와 어음현상을 주요한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음현상은 형태소 내부의 통시적 현상에 치중하고 있으며 음소나 음운현상의 지리적 분포를 통하여 그 변화를 추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언어지리학적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김병제(1965)는 국어의 형태론 부문에서의 방언적 특성을 대강이나마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p. 6). 단어구성에서의 방언적 특성과 방언에서의 문법적 형태가 논의 대상이다. 이 책에서는 소위 ‘ㄷ, ㅅ, ㄷ’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을 역사적 어음교체로 본 점(pp. 13-17)과 많은 문법형태에 대응하는 각 방언형들을 알려주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⁶ 이 논문 역시 형태소의 지리적 분포를 통하여 그 변화를 추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지리학적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한영순(1967)은 방언들의 체계를 밝히고 그 특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머리말), 어음론, 형태론, 어휘론, 매개 사투리(=방언)들의 특성, 방언들의 구조적 상호관계의 구명을 주요한 논의 대상으로 한다.

이 책은 어음, 형태, 문장, 어휘면에서 전국 방언들간에 구조적 특성을 보일 수 있는 특징들을, 문화어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방언들을 통하여 대조하고 있는 점과 그 결과로써 개별 방언들의 특성과 방언들의 구조적 상호관계를 밝히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될 만하다. 그러나 자료의 신뢰도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김병제(1975)는 방언들간의 문장론적 차이와 어휘론적 차이를 분석하여 문화어규범을 침투·보급시키고 방언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p. 4), 문장론, 어휘론, 문화어 규범의 침투·보급과 방언을 없애기 위한 과업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책은 김병제(1959)나 (1965)에 비하여 비체계적이다. 특정한 또는 한정된 방언의 문장론적,

⁶ 그러나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을 역사적 어음교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원응국(1961: 62)에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원응국(1961: 70-71)에 의하면, 그에 앞서 소련의 홀로도위치(1954, 조선어 문법개요)에 그러한 주장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어휘론적 특성에 대한 논의에 머물고 있다.

끝으로 김영황(1982)는 좁은 의미의 방언 즉 토박이 사투리를 기본대상으로 하면서 그것을 다른 것과 대조하면서 고찰한 것인데, 어음론, 문법론, 어휘론과 제방언의 특징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책은 김병제(1959, 1965, 1975)와 한영순(1967)을 근간으로 하고 일부 저자의 견해와 자료를 첨가하여 집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으’를 가진 단어의 제방언형표(p. 25)와 한영순(1967: 83-84)에 제시된 표, 제방언의 단모음 대조표(p. 33)와 한영순(1967: 56)에 제시된 표, 제방언의 격어미 대조표(p. 73)와 한영순(1967: 151)에 제시된 표가 형식에서 일치하고 내용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3. 3. 언어지리학적 연구

해방 이후에 국어방언학 연구 중 언어지리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수는 극히 적다. 그 점에서 김병제(1988)은 그 방면의 첫 저서에 해당한다. 김병제(1988)은 언어지리학에 대한 개념을 옹계 세우고 그 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언을 기본으로 하여 지리학적 고찰을 하려고 한 것이다(p. 3).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논의 대상은 언어지리학연구와 그 의의, 언어지리학적 견지에서 본 말소리체계와 문법체계 및 어휘론, 방언현상의 지리적 분포와 그 요인, 그리고 방언구획이다.

그 중에서 이론부분은 타당하지만, 실제 연구 부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1) 조사지점의 불균일, 2) 자료의 신뢰도, 3) ‘방언지도의 해석’ 등이 그런 것이다. 1)의 예로서, ‘대격’에 대하여 논하는 경우에, 동남방언의 많은 郡 중에서 경상남도의 <울산, 양산, 밀양>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p. 64)을 들 수 있다. 2)는 제시된 자료가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와 중요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해라>말차림의 물음법을 들 수 있다. 이 책에는 전통적인 동남방언에서는 의문종결어미 ‘-고, -노’가 우세하며, ‘-고’는 문 속에 의문사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사용된다(pp. 103-105)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동남방언의 대부분에서 체언서술어에 사용되는 의문 종결어미 ‘-고’는 문 속에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고 의문사가 없을 때에는 ‘-가’가 사용되는 것이다. 후자의 예로는 이 유표시형태소 ‘-으니까’의 방언형을 들 수 있다. 이 책에 제시된 방언형(p. 124) 중에는 상당히 넓은 분포영역을 가지고 있는 ‘-응계(전북), -응계(서부경남), -으니깐(상당 부분의 중부방언)’ 등이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3)은 언어지리학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방언지도의 해석’은 방언형의 분포를 통하여 해당 형태의 변화사를 구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는 방언

형의 분포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분포를 통한 해석은 전혀 없다.

4. 마무리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방언연구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연구 목적과 방법 및 실제의 방언연구의 검토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북한의 방언연구는 그 목적이 1960년대 중기를 기점으로 하여 크게 달라졌다. 1960년대 중기 이전까지의 방언연구는 맑스-레닌의 언어이론(음성학과 음운론을 구별한다면, 이 이론은 구조주의 언어학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을 수용하면서, 국어의 역사와 국어의 발달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작용한 언어법칙을 밝히고, 국어를 규범화하며, 개별방언의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언어지리학적 연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기 이후의 방언연구는, 종래의 연구 경향을 벗어나서, 문화어를 발전·보급시키고 사회의 언어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 방언연구를 보면, 개별방언의 체계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으며, 어음론적인 것이 주를 이루었다. 어음론적인 연구는 형태소 내부의 통시적 현상이나 음성적인 것을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공시적 현상은 거의 논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통시적 현상은 방언연구의 모든 분야에서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북한의 방언연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著書 단위로서 전국 방언을 대상으로 하는 대조 및 비교방언연구가 여러 편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북한의 방언연구와는 달리, 남한은 역사·비교언어학 이론,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 변형생성문법론, 사회방언학 이론을 차례로 수용하면서, 개별방언에 대한 공시적·통시적 연구와 언어지리학적 방언연구를 계속하여 왔다. 개별방언을 대상으로 언어학의 거의 전분야에 걸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음운론적 연구가 주를 이루며, 형태론적, 통사론적, 어휘론적, 의미론적 연구는 많지 않다. 근래에 道 단위의 언어지리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전국 방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없다. 방언연구의 경향은 비체계적인 원자론적 연구(1950년대 중기 이전)에서 체계 중심의 연구(1950년대 중기 이후)로, 표면적인 현상에 대한 연구(1950년대 중기 이후에서 1960년대 말)에서 기저의 실재와 규칙 구명 중심의 연구(1970년대 이후)로 바뀌어 왔다.⁷

⁷ 남한의 방언연구사나 연구경향에 대하여는 李秉根·李丞宰(1985: 99-125)와 崔明玉(1990: 667-75)을 참조할 것.

따라서 남북한의 방언연구는 다음 일곱 가지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겠다. 그것은 1) 공시적 현상과 통시적 현상의 구별, 2) 형태소 경계의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 3) 형태소의 통사적 기능의 구명, 4) 개별방언에 대한 체계적 연구, 5) 전국방언에 대한 대조 및 비교연구, 6) 전국 또는 대단위 방언에 대한 언어지리학적 연구, 7) 방언구획론이다. 이 중 남한의 방언연구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5)-7)이고, 북한의 방언연구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1)-4), 6), 7)이다. 그러므로 지적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할 때에, 방언연구 분야에 대한 남북한의 異質的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방언연구 논저목록〉

- 1956, 김병제, '조선어 방언연구를 위하여,' 조선어문 3.
 1956a, 한영순, '조선어 방언들의 과학적연구를 위한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술논문집.
 1956b, 한영순, '평안북도 의주 피현지방 방언의 어음론적 특성(상),' 조선어문 4.
 1956c, 한영순, '평안북도 의주 피현지방 방언의 어음론적 특성(하),' 조선어문 5.
 1958, 김병제, '조선어 방언에서의 반모음적인 ㅏ[u]와 ㅓ[i]에 대하여,' 조선어문 3.
 1959, 김병제, 조선어 방언학 개요<상>,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9, 정용호, '단어의 형태부에 첨가되는 [이]음의 형태-어음론적 특성(함경남도방언을 중심으로),' 조선어문 4.
 1961, 김학수, '함경도 방언의 몇가지 특징,' 말과 글 11.
 1961, 정용호, '조선어의 방언적 차이의 성격과 그 특징,' 조선어학 4.
 1962, 한두복, '륙진방언 연구(개요),' 조선어학 2.
 1963, 김병제, '주격형태에 나타난 방언학 특성,' 조선어학 1.
 1963, 리극로, '북청방언의 조(調) 연구,' 조선어학 3.
 1963, 정용호, '함경남도 방언에서의 구개음화현상의 특성,' 조선어학 4.
 1965, 김병제, 조선어 방언학 개요<중>,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정용호, '함경남도 방언에서의 절대격의 특성,' 조선어학 2.
 1966, 한영순, '사투리들의 특성을 규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문연구 1.
 1967, 한영순, 조선어방언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5, 김병제, 조선어 방언학 개요<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8, 김영환, '방언들의 교차에 따르는 특징적인 언어적 변화,' 조선민족어발전역사연구(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1980, 김병제, 방언사전,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김영환, 조선어 방언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정용호, '함경도방언의 억양에서 나타나는 특성,' 조선어문 3.
 1988, 김병제, 조선언어지리학시고,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a, 정용호, '함경도방언의 속도에서 나타나는 특성,' 조선어문 1.
 1988b, 정용호, 함경도방언연구, 교육도서출판사.

참고문헌

- 곽충구(1990) '북한의 방언연구,' 북한의 국어국문학연구(국어국문학회), 지식산업사.
 金敏洙(1991) '북한의 國語研究史 개요,'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I(학술분야)(金敏洙 編), 도서출판 녹진.
 김병제(1960) '해방 후 15년 동안 조선 언어학의 발전,' 조선어문 4.
 김영배(1991) '<조선어 방언학 개요> 평설,' 북한 언어학연구(한글학회 연구 발표).
 金完鎭(1963) '國語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 63.
 류 렬(1961) '조선말의 모음조화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1),' 조선어학 2.
 박영준(1991) '북한의 방언연구사,'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I(학술분야)(金敏洙 編), 도서출판 녹진.
 이기갑(1991) '서평: 김병제(1988), 조선언어지리학시고,' 周時經學報 7.
 李秉根·李丞宰(1985) '第4章 方言學의 研究,' 國語學研究史(高永根 編), 學研社.
 최명옥(1989) '구미언어학이론의 수용과 국어음운론연구,' 국어국문학과 구미이론(국어국문학회), 지식산업사.
 최명옥(1990) '方言,'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東亞出版社.

ABSTRACT

North Korean Dialect Research

Myung-ok Choi

The purpose of dialect research in North Korea changed drastically around the mid-1960s. Up until that time, such research was generally car-

ried out following Marx-Leninist linguistic principles, in order to discover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linguistic laws that affected this development, to standardize the language, and to do geographical linguistic research through the systematic research of individual dialects. Starting in the late 1960s, however, dialect research broke with previous trends and began to be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nd promulgating the “Cultured Language” and of improving society’s use of language in general.

Among actual dialect research, the percentage taken up by systematic research of individual dialects is extremely small, the majority being phonological in nature. The phonological research tends to concentrate on historical change occurring within morphemes, and phonetic matters, while contemporary alternation appearing on morpheme boundary is hardly discussed at all. Thus historical phenomena are the main concern in all fields of dialect research. One notable aspect of North Korean dialect research is the fact that there are several works that compare and contrast dialects of the entire country.

There are seven major differences between dialect research in North and South Korea:

- 1) The distinction betwee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henomena.
- 2) Research on phonological phenomena of morpheme boundary.
- 3) Investigation of the syntactic function of morphemes.
- 4) Systematic research into individual dialects.
- 5) Comparative/contrastive research into dialects of the entire country.
- 6) Geographical linguistic research into dialects of large or national scope.
- 7) Dialect boundaries.

Of these, South Korean research is weak in areas 5-7, and North Korean research generally in areas 1-4, 6 and 7. In order to reconcile the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dialect research, each will have to supplement and correct those areas in which it is weak.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